

황호천

본회 회장, 세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크리스천 기업가의 갈등

이 글은 97.2.21~22에 대광고등학교에서 열린 기독교문화회에서 발표되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갈등은 참으로 많을 것이다. 크리스천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매일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하는 크리스천의 갈등은 삶에 대한 진지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클 수록 더욱더 크게 부각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세상은 택함 받은 성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다(요15:19).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을 느끼지 않거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아님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특별히 기업활동을 영위하도록 부름받은 크리스천 기업가들에게 있어서 갈등은 어떤 의미로든 매우 당연한 것이다.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사업상 아무런 갈등이 없다는 답을 얻었다면 다음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업을 하므로 전혀 갈등의 여지가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은 사업이고 개인 신앙은 신앙이라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갈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다. 통상적으로

전자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므로 대부분 후자일 것인데, 그것은 분명 성경에서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와 같이 크리스천 기업가가 사업상 느끼는 수많은 갈등을 구분하여 기독교적인 대안을 제시함이 본 글의 목적이다. 이를 다음의 7가지 갈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갈등 1. 기업경영의 목적

A :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B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번다.

갈등 2. 재화와 서비스

A :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

B :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도 해서는 안될 사업이 있다.

갈등 3. 경영정책

A :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B : 많은 사람과는 달리 사업을 하겠다.

갈등 4. 경영철학

A : 당신이 망해야 내가 산다.

B :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다.

갈등 5. 리더십

A : 리더란 지배하는 자이다.

B : 리더란 섬기는 자이다.

갈등 6. 종업원의 태도

A : 나는 월급장이에 불과하다.

B : 나는 동역자이다.

갈등 7. 구조적 특성

A :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B : 이 일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1. 기업경영의 목적

왜 돈을 버느냐의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라고 쉽게 대답한다. 언뜻 생각하기에 이 말은 매우 타당성 있게 들린다. 그러나 크리스천 기업가가 돈을 버는 목적은 이것 이상이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기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상의 목표는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크리스천 기업가에서의 기업경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이다. 누구나 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더욱 그렇지 않다. 오직 택한 자에게만 이러한 특권이 주어졌다. 특권을 받은 크리스천 기업가들은 이러한 특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경영 목적을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2. 재화와 서비스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당하는 다른 갈등 중의 하나는 분명 이러저러한 상품을 팔면 돈을 벌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행동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일 것이다. 예를 들어 불량제품을 싼 값에 만들어 비싸게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물건을 팔면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천 기업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 기업가들과 달라야 할 것이다.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자면 첫째, 취급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배출한 공해 물질은 극히 소량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다른 기업들도 자기 회사가 배출한 공해는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공해 물질이 모여 강과 바다와 공기를 오염시킨다. 바로 우리 회사에서 지구촌의 파괴가 시작된 것

이다. 환경을 파괴할 제품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환경을 되살리는 산업에 종사하는 것도 적극적 의미에서 소중한 일이다. 미래의 세계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은 소멸할 수 밖에 없으며 환경 친화적인 기업만이 생존할 것이다.

둘째, 소비적인 가치관, 습관, 태도,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담배나 기타 몸에 해로운 식품류, 폭력이나 음란을 조장하는 업종은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류를 병들게 하는 것으로, 비록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다 해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이 다음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으로 돈을 벌었는가도 동시에 중요할 것이다.

셋째, 과소비를 조장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 악화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옷 한 벌에 천만원 이상하는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인가? 하루에도 세계적으로 3만 5천여 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품을 사는 사람도 문제이겠지만,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크리스천 사업가는 어떤 물품을 취급하여 돈을 벌 것인가에 민감해야 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높은 이윤을 남기는 물건이나 서비스일수록 부정적인 요소가 내포될 가능성이 크다. 그 만큼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이다. 성경은 비록 어느 물건을 만들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우리 직장이, 내 사업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고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만으로 벌써 성경적인 기업 경영을 할 준비가 된 것이다.

3. 경영정책

세상 기업가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거래처에 협박하거나 대금결제를 늦추고 탈세를 하고 뇌물을 주는 현상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는가? 우리나라 같은 기업풍토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한 채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회사만은 남들과 달리 정직하고 공평하게, 책임있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가? 이 주제는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당면한 가장 큰 갈등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문제는 특별히 전직 대통령과 연루된 대기업들의 비자금 사건들이나, 최근 잇단 공무원들의 뇌물 사건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다. 진정 우리나라에서는 뇌물을 주지 않으면, 탈세를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가?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직원은 해고해도 괜찮은가? 다른 기업들처럼 비록 우리 회사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도 끝까지 버티어서 여론을 오도하거나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비결인가?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크리스천 기업가들의 사례를 접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달리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롬 12:2).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크리스천 기업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4. 경영철학

지금까지 기업경영을 지배한 경영철학은 경쟁 위주의 유클론적 사고였다. 유클론적 세계관은 우주는 분리된 개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개체는 그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 경쟁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철학이 기업경영에 적용된다고 믿는 이유는 기업환경은 마치 정글과 같아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기업만이 살아 남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망해야 한다. 극심한 시장경쟁은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내가 많이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 적게 먹어야 했다. 우리 업종은 동일한 업종의 상점이 길 건너 새로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물

리쳐야 - 예를 들어 가격 파괴나 공갈 협박 등을 해서 -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경적 기업경영은 이 점에 있어서도 다르다. 경쟁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관계에 중점을 둔다. 소비자를 대할 때도 거래처를 대할 때도 심지어 경쟁사를 대할 때도 관계 유지에 중점을 둔다. 성경적 경영철학은 경쟁자가 망할 때 내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잘 될 때에 비로소 나도 잘 된다는 경영철학이다. 즉 더 이상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포지티브-섬 게임이 되는 것이다. 음식점들이 먹자 골목에 모이고, 양복점들이 양복점 거리에, 전자제품 취급점들이 전자상가에 모인다. 이제 크리스천 경영자들은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유물론적 사고에 의해 상대방이 망해야 내가 잘 된다는 생각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모두 잘 사는 사고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5. 리더십

크리스천 기업가들은 스타일에도 갈등을 느낀다. 한 편에서는 남을 지배할 때에 비로소 지도력이 생긴다고 믿고 있는 반면 성경은 남을 잘 섬기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말한다. 16세기 이탈리아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마키아벨리는 사랑과 두려움에 근거한 지도력이 바람직하지만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을 근거로 맺어진 관계는 그것을 단절하려고 할 때 큰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쉽게 단절하지 못하고 권력에 복종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남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한다(마20:26-27). 통상적으로 지도자란 당연히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의 소유자이며 무엇인가 남보다 잘 난 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는 반대로 가르친다. 오히려 남을 섬기는 자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권력(힘)이 있어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점에서는 크리스천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나 재물 또는 무력에 의하여 권위를 세우고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다. 성경적 지도자는 이렇게 부여된 권위나 권력으로 이웃을 억압하거나 협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빌2:8). 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 안에서의 지도자와 세상의 지도자와는 다르다. 크리스천 기업가들의 지도력은 섬김에서 나온다.

6. 종업원의 태도

사정 칼날이 날카로울 때마다 공무원들은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들 한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기업에서도 나타난다. 물론 공무원과는 달리 일반 회사원은 자기의 능력이윗사람으로부터 인정될 때 출세도 할 수 있으므로 사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찍 출세하면 그 만큼 적이 많다는 생각에 움추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대로 자기의 능력을 진실 이상 과장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뚜렷한 현상은 자기 회사라는 애사심이 갈수록 희미해진다는 점이다. 공과사의 구분도 불분명하여 회사의 돈으로 개인의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도 월급에 해당하는 만큼만 하면 되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영비법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필요가 없다. 언제 다른 곳으로 옮길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노출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은 잦은 이직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산업스파이를 생성시키고 기업 윤리를 붕괴시킨다. 그러나 좀더 크게 보면 이 직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며 - 물론 불의한 경우는 예외이지만 - 무엇보다도 공동체 의식에 입각하여 모두가 동역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직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calling)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쳤다. 이것은 청지기 사상과 뿌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목사나 선생이나 사장이나 그 역할과 하늘

로부터의 상급이 동일하다. 비록 월급을 받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돈이 사장을 통해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적으로는 사장과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며, 그도 월급이라는 대가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확신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7. 구조적 특성

때로 우리는 동료들 믿을 수 없어서 나 혼자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만이 이 일을 완벽히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 뿐 아니라 믿는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흔한 일이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약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동에 옮길 수도 없을 것 같다. 다른 기업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운명을 할 것 같지가 않다. 나 혼자서, 우리 회사 하나만은 탈세도 하지 않고, 뇌물도 주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세력이 크며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로 이루어져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진리가 감추어져 있겠지만, 예를 들어 맡은 역할은 다르다. 서로 협력하여 목표를 이루는 진리를 시사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의 부정과 맞부딪쳐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기업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천 기업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즉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격려할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몇 개의 크리스천 기업이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단 열 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다. 진정한 열 개의 크리스천 기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당면할 수 있는 일곱 가지의 갈등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 성경적 대안들을 찾아보았다.

아무리 사단이 날뛰어도 최후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다. 지금은 기업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먼저 된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합심해야 할 때이다. □